

박스권 장세 속 트렌드를 읽자

로봇·인공지능·폴더블폰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큐렉소·에브리봇 외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이 2022년 박스권 장세 속 시장을 이끌어 갈 테마로 로봇, 인공지능(AI), 폴더블폰을 제시했다.

3일 리서치알음은 해당 섹터 내 유망 종목으로 ▲큐렉소 ▲에브리봇 ▲위세아이텍 ▲엠브레인 ▲디케이티 ▲노바텍을 꼽았다.

2022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변수는 선진국과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IT 버블 당시의 최고치에 도달한 상황이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21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선진시장의 유동성 긴축과 이익 성장성 정체로 국내외 시장의 지난 2년과 같은 대세 상승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트렌드를 읽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로봇의 경우 산업과 더불어 의료, 가전 등에서의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큐렉소'는 국내 최대 의료로봇 전문 기업이며, '에브리봇'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IOT(사물인터넷) 흡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이다.

이동현 연구원은 "큐렉소의 큐비스-조인트(CUVIS-joint)는 영상을 기반으로 수술 계획에 따라 정밀하게 뼈를 깎는 관절수술로봇이다. 관절수술로봇으로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상용화한 제품"이라며 "성능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브리봇의 경우 로보스핀(바퀴가 없는 로봇청소기의 주행을 정확하게 제어), 스마트 비전 맵핑(방향 및 속도 제어), 레이저 비전 프로세싱(장애물 위치 및 거리 인식) 등 다수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로봇청소기 외

<2022년 중소형 유망종목>

종목명	모멘텀 예상시기	투자 포인트	시가총액 (억원)
큐렉소	3분기	3Q22 CUVIS-joint 국내 식약처, 유럽 GE에 이어 美 FDA 승인 취득 전망	2479
에브리봇	상반기	1H22 신규 제품 출시 및 마케팅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2408
위세아이텍	상반기	CES2022에서 동사의 첫 메타버스 제품 공개 예정, 상반기 내 산업용 메타버스 제품 출시 계획	1394
엠브레인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서비스 본격적인 영업 계획, 마진 50%이상으로 수익성 개선 가능	772
디케이티	1분기	삼성전자 폴더블폰 집중지시 표명, 내년 1,000억원 이상의 폴더블폰용 매출 발생 예상	2626
노바텍	3분기	태블릿 악세서리 외 폴더블폰 구동부품 내 자석 공급 시작, 내년부터 폴더블폰용 매출 발생 본격화	4254

/리서치알음

로봇 분야

국내 최대 의료로봇 전문 '큐렉소' 로봇청소기 주행 제어 '에브리봇'

AI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사업 수혜 '위세아이텍' 마케팅 리서치 1위기업 '엠브레인'

폴더블폰 분야

삼성 FPCA 독점공급 '디케이티' IT 기기용 자석 공급 '노바텍'

에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수출 증가와 로봇청소기 침투율 확대가 향후 에브리봇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AI 관련 기업으로는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위세아이텍', 국내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1위 기업인 '엠브레인'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위세아이텍의 사업 부문은 AI와 빅데이터로 구분되며, 고객사의 75%가 공공·금융기관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사업 시행 시 수혜가 가능하다"고 했다.

엠브레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빅데이터 업체가 타기관의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반면 동사는 직접 보유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폴더블폰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급증한 17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량이 급증하는 만큼 '디케이티', '노바텍' 등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부품 독점 공급 기업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디케이티는 SMT(표면실장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019년부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용 FPCA(연성인쇄회로 어셈블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디케이티는 폴더블폰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케이블에도 FPCA 공급을 시작했다"며 "전기차용 케이블은 스마트폰보다 10배가량 FPCA 면적이 넓고 자동차 한대당 수십여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에 판매된다. 올해에는 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외형 성장에 더한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된다"고 했다.

노바텍은 IT 기기용 자석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현재 매출액의 90% 이상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에서의 공급 실적이다. 이 연구원은 "내년 신제품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취임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 강화 ‘숨은일꾼’ 공정하게 보상”

‘No.1 금융플랫폼 기업’ 선언 PG 2.0 영업체계 고도화 추진

“모든 금융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바로 고객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3일 취임식을 통해 “KB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고객 중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장은 이날 넘버원(No.1) 금융플랫폼 기업을 향한 네 가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행장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모든 영업점이 모바일 플랫폼 및 콜센터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옴니채널의 완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강화한다.

이 행장은 “KB국민은행의 핵심근간인 영업점의 세일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G 2.0 영업체계를 고도화 하고 9 to 6 뱅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대면영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겠다”며 “KB형 플랫폼 조직 2기 전환 등 조직개편으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G2.0’ 채널 전략은 6~7개의 지점이 파트너십 그룹(PG)이 되어 그룹 내 점포 간 협업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대처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취임식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록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이 행장은 “담대한 목표를 세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모든 직원들이 조직의 승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함께 가는 팀(Team) K B’가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숨은일꾼’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행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그린뉴딜’과 같은 신성장 및 혁신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는 “ESG 경영과 사회공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범 기업 시민이 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개로 ‘국민의 은행다운’ KB국민은행의 멋진 한 해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지난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급감

HSCEI 지수 하락에 ELS 수요 감소 장기화 땀 손실 가능성... 투자 유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DLS·ELS) 발행 잔액이 80조원을 밑돌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신규 발행이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79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013년 말(63조2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2020년 2분기 말 이후 지속해서 줄어 들고 있다.

특히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조6000억원, 상환액은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각각 6조4000억원,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종류별로 보면 ELS 발행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0.8%(5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홍콩 주가지수 하락으로 ELS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22.1%(2조9000억원) 감소한 1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비중은 전체의 87.0% 차지하며 9.8%포인트 증가했다.

종목·혼합형 발행액은 1조5000억원(13.0%)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9조4000억원), 유로스톡스50(8조4000억원), 홍콩H지수(4조4000억원), 코스피200(3조7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홍콩 H지수(HSCEI)와 항생(HSI)지수는 각각 18.2%, 14.8% 하락했다. ELS 상환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조3000억원(38.8%)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조기상환액 중 홍콩H지수 편입 ELS 비중은 7.4%로 직전 분기(47.0%) 대비 39.6%포인트 급감했다.

ELS 발행 잔액은 5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00억원(0.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 홍콩 H지수는 상승·하락을 반복하며 지난해 12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홍콩 H지수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조기상환 지연 및 만기상환 손실 가능성 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시 유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모든 판단 기준은 고객... ESG운영체계 강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신년사 “가치창출 위한 사업 협력 강화”



지난해에도 주식시장에는 2030세대를 선두로 더 많은 새로운 고객들이 지속 유입됐다. 더욱 풍부해진 유동성은 기업들의 미래가치를 견인할 투자재원으로 활용됐고,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고객의 투자수요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는 항상 새로움의 연속이었다”며 “전 산업군에 걸쳐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들이 수없이 등장했고, 금융업계도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등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선택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문 간 협력과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대표는 “조직간 경계는 우리만의 이야기일 뿐 고객은 우리의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고객에게 도움 되지 않는 일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것이 보다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 관점의 운영체계 역시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서비스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그에 걸맞은 고객보호 및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과 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고객가치 창출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사진)가 “기존의 경험으로 고객의 니즈를 미리 단정 짓거나 단기적인 손익계산서만으로 비즈니스의 성패를 예단하는 일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모든 판단 기준을 항상 고객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가치 제고 ▲사업 부문 간 협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운영체계 등을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를 역사상 가장 우호적이었던 금융투자업 환경으로 평가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던 2020년에 이어